

# 신석기시대 고산리유적과 주민집단의 성격

김 경 주\*

- I. 머리말
- II. 자연환경의 변화와 층서
  - 1. 자연환경의 변화
  - 2. 고고학적 층서의 해석
- III. 고산리유적의 형성과 전개
  - 1. 유구와 출토유물
  - 2. 절대연대와 선후관계의 분석
- IV. 정주환경과 주민집단의 성격
  - 1. 정주성 환경의 인식
  - 2. 주민집단의 성격
- V. 맺음말

## 국문초록

고산리유적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출현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이다. 자연과학 분석결과 유적의 상한연대는 9,000 BC를 상회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적이 형성된 이후 신석기시대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취락이 조성된다.

고산리유적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출현하였으며 연안환경의 조성은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생업패턴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고산리 주민집단은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주성 취락을 형성하고 수렵채집과 함께 어로활동을 병행하면서 생계를 영위하여 나갔다. 고산리유적은 이와 같이 정착과 이동을 병행했던 취락에 해당하며 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이동보다는 수렵채집을 위한 소규모적 이동이 상정된다.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tamra1000@hanmail.net

고산리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야외노지, 다량의 토기와 성형석기 그리고 대형 갈판은 장기간에 걸친 정주취락의 증거로 해석된다. 14C연대 측정결과를 참고하면 고산리취락은 크게 신석기시대 초창기 이후 초기와 전기를 거쳐 후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주제어 : 초창기, 정주취락, 생업경제, 고산리식토기, 주민집단

## I. 머리말

고산리유적은 한국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고산리유적을 주제로 신석기시대 초창기 문화에 대한 해석을 위해 다양한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들이 제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산리유적의 전개과정을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고산리유적의 고고학적 퇴적층과 출토유물의 맥락, 유구 어깨선에 대한 불확실성, 유적의 중심시기와 편년 등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여러 차례 지점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조사방법을 동원하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고산리취락의 정주환경과 주거구조에 대한 논의는 이분법적 논리만을 주장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조사환경과 연구자에 따라 해석의 프레임이 다르게 도출되기도 하고 또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학문적인 명제를 나름 발전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수 만점에 달하는 출토유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유구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유적의 성격을 해석하기 위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즉 고산리유적 내 야외노지만을 인정하거나 혹은 수혈주거가 아닌 원시적인 지상식 주거시설이 조성되는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sup>1)</sup>

야외 집석식노지의 축조와 정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또한 다양한 유구와 절대연대 분석자료는 맥락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집석식노지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주하는 환경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축조 및 확장을 반복하는 유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절대연대 산출결과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정주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주지하듯이 대규모 집석식노지의 재활용 및 절대연대의 집중화, 대형 연석, 다량의 토기와 성형석기 제작은 동시기 정착환경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따라서 고산리에서 확인된 유구와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락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고산리유적의 정주환경에 대한 고고학적 근거와 출토유물의 맥락을 분석하여 취락의 중심시기와 편년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고자 한다. 더불어 고산리 주민집단의 생업경제와 관련된 개략적인 모습도 해석해보기로 한다.

## II. 자연환경의 변화와 층서

### 1. 자연환경의 변화

약 10,000yr BP 이전의 한랭·건조한 기후는 식물의 생육에 불리한 토지조건을 조성하지만 온난·습윤한 시대로 이행되면서 토지조건 변화와 함께 참나무속(Quercus)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sup>2)</sup> 이러한 기후 변화는 야생 식물의 생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초식동물 역시 증가하게 된다.

최근 연구성과를 참고하면 일본열도는 14,000~15,000년 전 이후 해

1) 濟州考古學研究所, 『제주 고산리유적 I(2구역)』, 2017a.

2) 崔基龍, 「韓半島 後氷期の 植生 및 氣候 變遷史」, 『韓國 新石器時代의 環境과 生業』, 東國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第1回 學術會議 資料集, 2001, 49쪽.

수면이 현저하게 상승하며 10,000년 전부터는 해수면이 급격하게 올라와 조몬 전기중엽(6,000~5,500 BP)에는 현재보다 높아진다. 이것이 소위 조몬 해진에 해당하는데 이후 해수면이 다시 낮아지기 시작해 조몬 후기~만기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간 내려간다.<sup>3)</sup>

조몬 문화의 형성배경으로 조몬 해진이 상정되는데 우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다양한 수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로 식생대가 확대되고 식물성 자원 이용도 가능한 조건이 갖추어진다. 이처럼 수산자원과 식물성 자원의 확대는 생업환경의 다양화로 연결되고 정착성을 확립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수혈주거지의 축조, 활발한 어로활동, 식물성 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다량의 토기 제작과 사용 등 조몬 문화의 특징적 요소는 조몬 해진의 진행과 함께 열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정착되어 간다.<sup>4)</sup>

한편 제주도는 대략 15,000년 전 해수면이 현재보다 100m 정도 낮아 바닷물에 둘러싸인 섬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14,300년 이후 9,000년 전까지 MWP(meltwater pulse) 시기에는 해수면 변동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당시 주민집단의 생활영역 역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9,000년 전 이후의 고산리유적은 현재와 비슷한 해양성 기후로 바뀌게 된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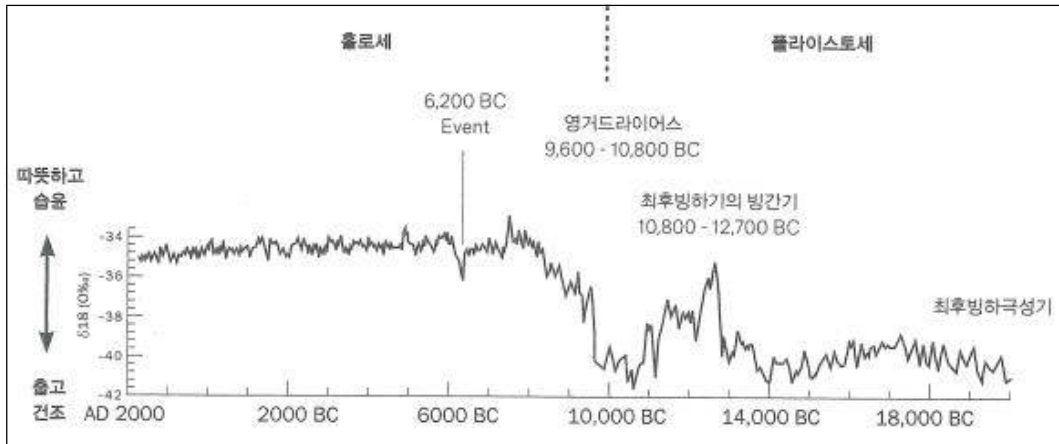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수면 상승, 해양성 연안환경, 기후와 식생환경의 변화는 동식물상의 다양한 변이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주민집단의 생업환경 역시 빠르게 바뀌어 나갔다고 추정된다. 특히 9,500년 전 이후 7,000년 전까지 지속된 해수면 상승은 고산리 주민집단의 생업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산리유적이 장기간에 걸쳐 점유되었다는 것은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생업활동을 안정적으로

---

3) 하야시 켄사쿠, 『일본 신석기시대 생업과 주거』, 천선행 옮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58쪽.

4) 하야시 켄사쿠, 앞의 책, 2015, 61쪽.

5) 임재수, 「동북아시아 후빙기 자연환경과 고산리지역의 환경 복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그림 1〉 후빙기의 기후환경 변화(스티븐 마이든, 2019에서 전재)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석된다.

홀로세 중기의 약 6,000년 전 이후에는 연안지역에서 해수면의 상승과 여름몬순의 감소로 강수량이 줄어들었는데 제주도의 해안지대는 점차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C4식물이 증가한다. 또한 홀로세 후기인 3,100~3,000년 전에는 가장 춥고 건조한 시기(dry period)를 경험하게 된다.<sup>6)</sup> 이처럼 홀로세 중기와 후기의 환경변화 역시 고산리 주민 집단의 생업환경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고산리유적은 절대연대 분석을 통해 기원전 7,600년경과 4,000년경 일정 규모 이상의 취락이 존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up>7)</sup> 이것은 지질학적 환경과 절대연대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9,500년 전 이후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와 6,000년 전 이후의 기후변화기에 취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3,100~3,000 BP 즈음 한랭기에 접어들면 점차 취락이 축소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조몬 초창기<sup>8)</sup>~전기 전반에는 수산자원의 향상적 개발과 식물성 식

6) 임재수, 앞의 논문, 2016, 39쪽.

7) 김명진·이용주, 「고산리유적 퇴적층과 목탄분석을 통한 유적 형성과정과 점유시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54쪽.

8) 조몬 초창기는 12,000 BP에 시작되어 약 4,000년 정도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AMS 연대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15,700~11,550 BP로 상향되고 있다(小林謙一, 「縄文時代前半期の實年代」, 『國立歴史民俗博物館 研究』)

료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 조몬시대 생업의 기본적 특징이 최후빙기에서 홀로세의 기후극상기로 넘어가는 환경변화 속에서 창출되었다. 예컨대 일본열도의 도카이(東海)·호쿠리쿠(北陸) 해안 저지대에서는 조몬해진이 피크에 도달하는 전후에 상록활엽수림이 나타난다. 이러한 활엽수림은 견과류 공급원이자 동물성 식료의 자원으로서 조몬인의 생업시스템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다.<sup>9)</sup> 조몬문화의 전개과정을 고려하면 고산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다량의 갈돌과 갈판 역시 견과류의 가공처리에 의한 식량자원 확보의 에너지체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열도는 대략 15,000 BP 이후 식생에 큰 변화가 진행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일본내 토기의 출현도 동시기를 전후하여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다.<sup>10)</sup> 이처럼 조몬 초창기 토기는 결국 후빙기 식생환경의 커다란 변화가 출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고산리식토기의 등장도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아직 일본 열도와 같이 15,000 BP까지 올라가는 14C연대가 확보된 바 없지만 이 즈음부터 제주지역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성 연안환경을 갖춘 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제한다면 조몬 문화의 형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일본열도 내 조몬문화는 후빙기의 환경변화에 적응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패류의 대량 처리를 위한 필요성에서 토기가 이용되었고 토기 발달의 배경으로는 후빙기의 환경변화와 식물질 식료를 중요시했던 점에서 기인한다.<sup>11)</sup> 고산리식토기의 출현과 제작 역시 이러한 환경변화의 산물이며 식량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생업전략의 성과물인 셈이다. 고산리유적 일대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양성 연안환경으로 변

報告』第137集, 2007, 100쪽).

9) 하야시 켄사쿠, 앞의 책, 2015, 122-126쪽.

10) 工藤雄一郎, 「縄文時代の 시작과 環境變動」, 『韓·日 初期 新石器文化 比較研究』, 第10回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2013, 53쪽.

11) 工藤雄一郎, 앞의 논문, 2013, 50-51쪽.

화되는데 수산자원에 대한 이용계획과 함께 어패류와 해조류의 식용과 저장방식에 대한 결과물로서 토기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산리유적은 후빙기 이후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식생과 동식물상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신석기시대 초창기에 출현한다. 더불어 퇴적층에 대한 절대연대 측정결과 최하층인 화산쇄설물층(5층)은 기원전 11,000년 이전에 형성되었으며 상층인 생토층(4층)은 기원전 9,000년 이전에 퇴적된 후 현재와 유사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고산리유적은 생토층과 그 상층인 문화층의 경계부분에서 유구가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형성시기는 기원전 9,000년을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sup>12)</sup> 이는 유적에서 채취한 목탄시료의 방사성탄소연대 분석결과를 보면 8,350 BC를 초과하는 연대의 산출 사례가 없다는 사실로도 입증되고 있다.<sup>13)</sup>

## 2. 고고학적 층서의 해석

2012년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기준 층위를 살펴보면 문화층의 상부에 퇴적된 토층이 대략 70~90cm 정도로 매우 두텁게 퇴적되어 있다.<sup>14)</sup> 반면 제주고고학연구소의 조사구역은 문화층 상부 퇴적층이 20cm 미만으로 대조적이다. 이는 곧 I구역이 II구역<sup>15)</sup>에 비해 양호한 퇴적환경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II구역은 전자에 비해 불안정한 층서적 환경임을 가리킨다.

12) 러시아 극동연구소(2002년)에서 실시한 고산리식 토기의 14C연대 산출결과(10, 180±65) 사례가 예외적이다(康昌和, 『濟州 高山里 新石器文化 研究』, 嶺南大學 校 博士學位論文, 2006, 215쪽). 따라서 토기의 출현기는 유적의 중심시기 보다 상향될 수도 있다.

13) 김명진, 『OSL 연대측정을 통한 제주 고산리유적의 형성과 점유시기 결정』, 『분석과학』 29(6), 한국분석과학회, 2016, 275-276쪽.

14)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2014, 47쪽.

15) 발굴조사 대상지는 각각 I(제주문화유산연구원)구역과 II(제주고고학연구소)구역으로 구분한다.

퇴적양상의 상이한 결과는 층서별 출토유물의 맥락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 3>을 참고하면 II구역 4층에서 고산리식토기와 함께 점열문·봉계리식·이중구연토기 등이 동반되는 사실로 입증된다. 즉 신석기시대 동일 문화층에서 여러 단계의 토기가 동반되고 있다. 더 나아가 문화층과 수혈유구에서 청동기시대 유물이 확인되는 사례도 있다. 이를테면 II구역 탐색트렌치(<그림 2>-①), I구역 N2E1(<그림 2>-②)과 S2W1(<그림 2>-③) Grid내 유물포함층, S2E4(<그림 2>-④) Grid 16호수혈유구내 출토유물은 청동기시대 송국리문화 단계의 표지적인 유물로 알려져 있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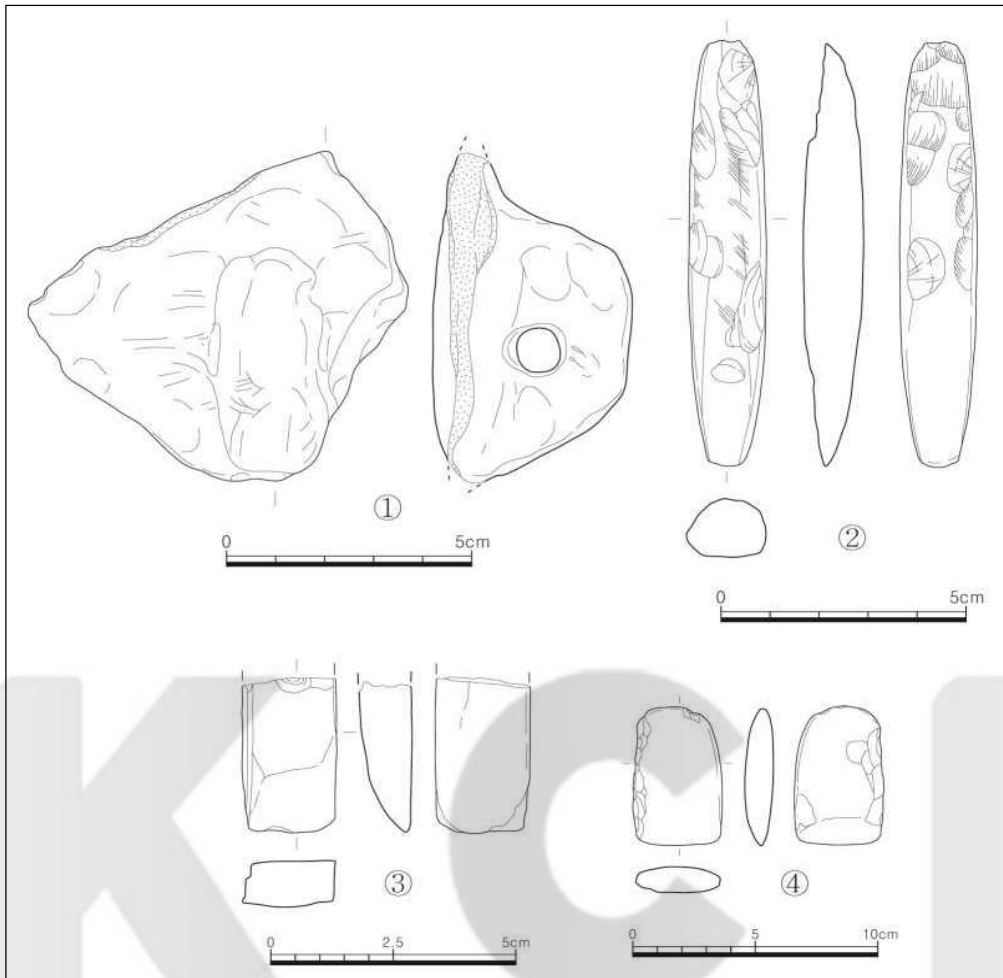
이처럼 문화층에서 출토되는 토기류가 매우 폭넓은 연대폭을 보인다는 점은 퇴적층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고산리유적의 신석기시대 문화층이면서 동시에 청동기시대의 유구 어깨선과 상면(床面)이 축조되는 층서에 해당함을 시사한다.

고산리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 분석결과에 대해 1~3차 발굴지역에 따라 측정연대가 다르게 확인되는 것에 주목하여 이동생활을 하는 여러 집단이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점유했다는 견해가 있다.<sup>17)</sup> 이러한 논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적내 전반적인 퇴적양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즉 I구역의 연차별 14C연대의 중심시기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은 1차→4차년도로 갈수록 유물포함층 상부에 퇴적된 토양의 두께가 얇어 3~4층에 대한 교란이 심하기 때문이다. II구역의 문화층에서 도자기편과 청동기시대 토기편이 출토되는 현상은 고려시대 이후에도 신석기시대 문화층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이 점은 유적의 퇴적양상, 후축된 유구에 의한 교란, 문화층의 불안정성, 폭넓게 산출되는 절대연대관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16) 金慶柱,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韓國靑銅器學報』 6號, 韓國靑銅器學會, 2010.

17) 소상영, 「제주 고산리 유적의 편년과 성격」, 『韓國新石器研究』 第33號, 韓國新石器學會, 2017, 14쪽.





〈그림 2〉 고산리유적 출토 청동기시대 유물

한편 고산리유적의 비유구설과 중심시기에 대한 논의<sup>18)</sup>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구 내부토가 단일층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토양퇴적 양상을 간과한 것에 불과하다. 제주도에서 신석기시대는 물론이고 청동기시대 이후의 뚜렷한 유구 매몰토에서도 대부분 단일층으로 확인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주거지와 수혈유구간 출토유물의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고산리유적이 장기간 점유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산리식토기

18) 소상영, 「고산리 유적 출토 토기의 자연과학 분석을 통한 제작기술과 사용연대 추정」,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가 소상영의 주장대로 용기문토기 단계까지 지속되고 고산리식토기의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셋째, 14C연대 분석자료를 참고하면 소상영 분류 IV~VI단계의 교정 연대 범위는 신석기시대 전기~후기의 범위에 해당하는데 동시기 유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고산리유적에서 측정된 절대연대(48점) 중 기원전 3,600~3,000년의 것은 4점에 불과하고 기원전 7,000년 이전으로 올라가는 절대연대는 18점, 기원전 6,900~4,500년에 13점이 포함된다. 따라서 신석기시대 초창기~조기의 편년을 가리키는 절대연대가 48점 중에서 무려 3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산리유적의 중심연대를 시사할뿐만 아니라 고산리식토기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점도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I 구역의 기반토내 유구와 S3E5 Grid내 1호 소토유구 및 S2E4 Grid내 14호 수혈유구의 내부토에 대한 분석결과 점토광물상 및 입도특성 그리고 지화학적 특성에서 각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sup>19)</sup> 이러한 분석 결과는 3기의 유구 조성과 사용 그리고 폐기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반증하는 내용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3기의 유구가 모두 동시기에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성행과 폐기시기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폭넓은 절대연대 분석자료 역시 장기간 점유되었던 고산리유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토기의 형식학적 변화양상을 살펴더라도 고산리식토기→용기문토기→영선동식토기→봉계리식·이중구연토기 등 신석기시대 장기간의 양식적 변천과정이 확인된다는 점은 상술한 내용을 신빙성 있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고산리유적내 화산쇄설층이 자연적이고 불규칙적인 퇴적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구의 어깨선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sup>20)</sup> 설사 그러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수혈

19) 한국지질환경연구소,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조사지역의 퇴적환경 변화와 유구 내부토의 토양 특성 연구」, 『제주 고산리 유적 Ⅲ』,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244쪽.

20) 濟州考古學研究所, 앞의 책, 2017a, 211쪽.

주거지와 같은 평면구조를 갖는 불규칙한 노면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5층의 불규칙적인 노면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양상을 설명하기는 더욱 더 어렵다. 왜냐하면 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자에 따르면 화산쇄설층인 5층의 상부에는 문화층(4-1층)과 그 하부에 생토층(4-2층)이 퇴적되어 있다. 때문에 5층이 퇴적된 이후의 비문화층에서 유물이 출토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유구설의 논리를 주장하려면 5층의 윗면에 퇴적된 4-2층이 유물포함층이면서 문화층으로 상정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게다가 Ⅱ구역 보고자가 신석기시대 초창기에 조성된 야외노지와 수혈유구 그리고 지상식 주거지의 존재는 인정하듯이 동시기 유구가 축조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N2W1 Grid내 1~3호 주거지와 1호집석식노지의 선후관계와 AMS연대 분석결과가 정합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고산리유적은 구역별로 다양한 퇴적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Ⅱ구역의 층위별 유물출토 맥락을 살펴보면 층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다수의 유구에서 바닥면인 화산쇄설물층에 연접하여 유물이 출토되는 점은 상면으로 이용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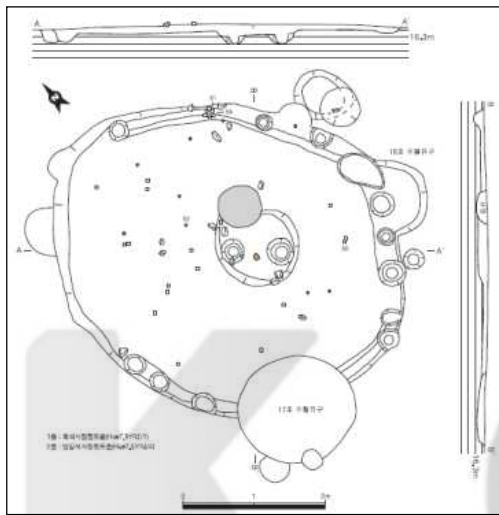
### Ⅲ. 고산리유적의 형성과 전개

#### 1. 유구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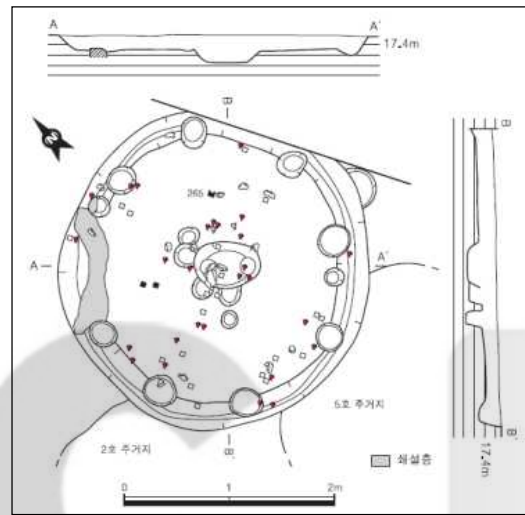
한반도 중부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I기(기원전 6,000~3,500년)에 해당하는 문암리와 오산리유적의 주거지는 원형과 방형이 상존하며 늦은 시기로 갈수록 방형주거지가 크게 증가한다. I기 주거지의 규모는 대체로 직경 3~4m이며 내부 중앙부에는 위석식노지가 설치되어 있다.

중부 내륙지역도 평면과 노지의 형태가 동해안지역과 비슷하다.<sup>21)</sup>

고산리유적의 주거지 평면 형태는 원형을 기본으로 하며 규모(면적)는 10㎡ 이상(11동), 7~10㎡ 미만(12동), 7㎡ 미만(16동)으로 구분된다. 일본 구주지역의 조몬 초창기 주거지중에 5~10㎡ 내외의 비교적 소규모 사례가 알려진 바 있어 참고 된다.<sup>22)</sup>



〈그림 3〉 I구역 N4E1 Grid 1호주거지



〈그림 4〉 I구역 S3E1 Grid 1호주거지

고산리 주거지는 평면형태와 규모면에서는 동해안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내부 중앙부에 수혈이 배치되고 노지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고산리와 동해안지역 I기의 주거지를 비교해 보면 평면형태와 규모는 신석기시대 전기까지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된다고 판단된다.




내부시설은 단면 V자상의 벽구시설과 주혈이 배치된 형태가 일반적이다. 벽구는 주거지의 벽체를 일주하거나 응결된 화산쇄설물이 노출된 경우에는 생략되기도 한다. 그리고 주혈은 벽구의 내부에 등간격으로 배치되지만 주거지 바닥면에 설치되기도 하며 불규칙적인 보조 주혈이

21) 具滋振 「한국 신석기시대의 집자리와 마을 연구」, 崇實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0.

22) 林潤也, 「九州における縄文時代竪穴住居の變遷」, 『日韓新石器時代の住居と集落』, 日韓新石器時代研究會 제7회 발표자료집, 2007, 114-115쪽.

조성된 사례도 있다. 또한 내부의 중앙부에는 방형과 원형계 수혈이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 양단 주혈이 배치되기도 한다.

〈표 1〉 고산리유적의 단계별 주거 유형(방문배, 2016에서 전재)

구분	방형	타원형	원형
수혈형태			
주혈배치	유	유	무
벽구시설	유	유	유→무
출토유물	고산리식/점렬문/무문양	고산리식/무문양/용기문	고산리식/무문양/용기문
단계설정	I 단계	II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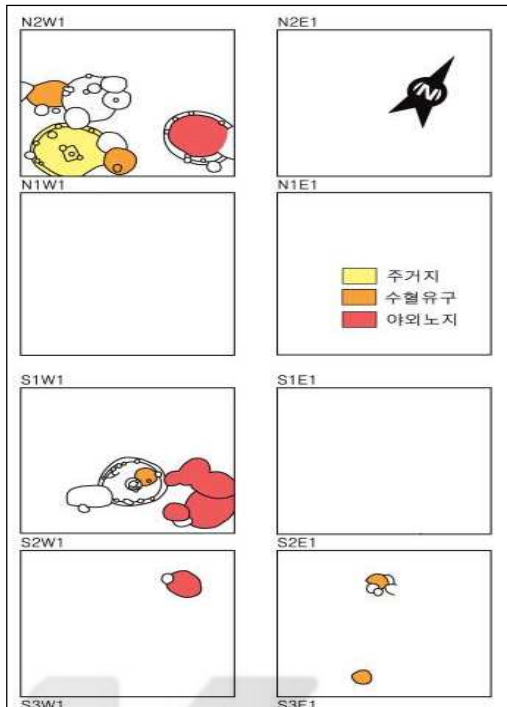
수혈주거지는 내부 중앙에 설치된 수혈의 형태가 시간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방형수혈이 배치된 주거지는 고산리식토기가 주체적이며 무문양토기와 점렬문토기가 소량 출토된다. 반면 원형계 수혈이 설치된 주거지에서는 고산리식과 무문양토기가 동반되지만 용기문토기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방형→원형수혈 주거지로 시간축의 변화양상을 상정할 수 있다.<sup>23)</sup>

결론적으로 주거지는 방형(I 단계)→원형수혈(II 단계)이 배치된 주거지로 전환되며 전자는 고산리식토기와 무문양토기, 후자는 이전 단계의 토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용기문토기<sup>24)</sup>가 증가하는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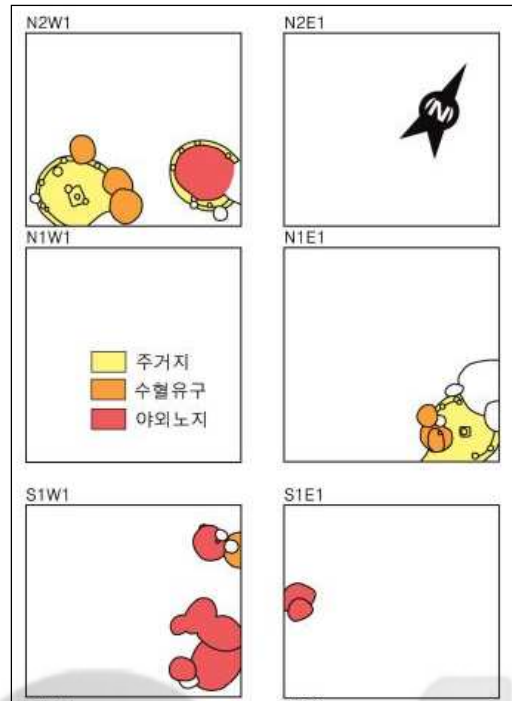
23) 방문배, 「고산리유적 유구의 성격과 정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24) 용기문토기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5,700~5,500 BC에 시작되어 4,800~4,500 BC 정도까지 지속된다(하인수, 「남해안지역 용기문토기의 편년」,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중앙문화재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2, 38-39쪽; 黃喆周, 「韓半島 東·南海岸地域 隆起文土器 研究」,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2, 80쪽).

18 탐라문화 제6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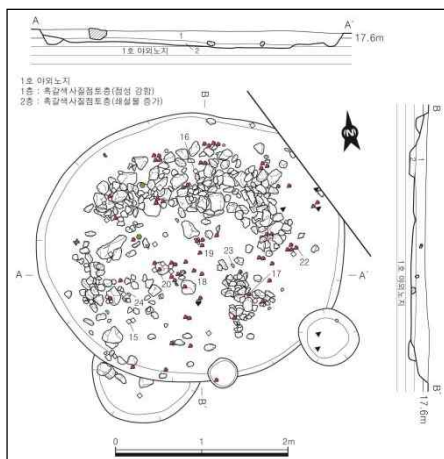


<그림 5> 절대연대(14C)별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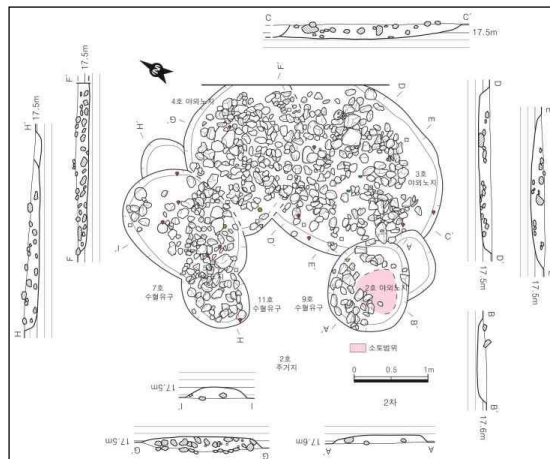


<그림 6> 단계별 유구배치도(1단계)

고산리유적의 절대연대 분석결과<그림 5>와 주거지의 형식학적 단계설정<그림 6>을 참고하면 집석식노지와 1~2동의 주거지간 동시기성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N2W1 Grid내 배치도를 보면 방형수혈의 주거지와 집석식노지는 공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석식노지는 대부분 동시기에 축조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림 7> 1구역 N2W1 Grid내 집석식노지



<그림 8> 1구역 S1W1 Grid내 집석식노지

반면 고산리유적에서는 모두 19기의 야외노지가 조사되었는데 집석식노지(9기)와 소토채움식노지(10기)로 크게 구분된다. 야외노지는 AMS 연대 측정결과 전자는 7,820~7,510 BC에 집중되고 후자는 2,920~2,610 BC의 빈도가 매우 높은 점으로 보면 이러한 형식적 차이가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한다고 여겨진다.<sup>25)</sup> 이처럼 고산리유적의 야외노지는 집석식노지가 선행하는 형식이고 소토채움식노지로 변화되고 있다.

집석식노지는 대체로 수혈식이며 내부에는 천석과 현무암 할석을 이용해 집석된 상태이다. 노지의 규모는 대략 직경 1.5~2m 내외가 일반적이고 3m 이상 되는 비교적 대형 노지도 조성된다. 집석식노지가 일부 공간에 집중되는 반면 소토채움 방식의 무시설식 노지는 산발적으로 축조되고 있다.

〈표 2〉 고산리유적 1구역 출토 토기조성비

토기	점유율	갯수	점유율(%)
고산리식토기		243	85.6
용기문토기		18	6.3
점렬문토기		8	2.8
압날문토기		2	0.7
각목문토기		2	0.7
무문양토기		11	3.9
합계		284	100

25) 서귀포시 인성리유적 3호집석식노지의 14C연대는 7,070~6,690 BC에 포함되며 반면 소토채움식노지는 대부분 3,650~1,950 BC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면 고산리유적과 매우 정합적이다(濟州考古學研究所, 『제주 사계-인성유적』, 2017c).

〈표 3〉 고산리유적 II구역 층서별 토기조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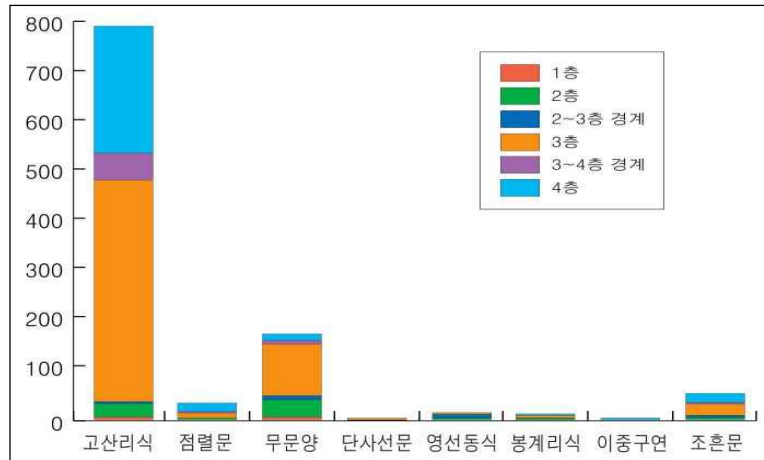
토기 \ 층위	1층	2층	2-3층 경계	3층	3-4층 경계	4층	합계(%)
고산리식토기	3	27	2	450	55	258	795(79.3)
점열문토기	0	1	0	10	1	17	29(2.8)
무문양토기	3	35	6	105	5	13	167(16.8)
단사선문토기	0	0	0	1	0	0	1(0.1)
영선동식토기	0	1	3	1	0	0	5(0.5)
봉계리식토기	0	1	0	2	0	1	4(0.4)
이중구연토기	0	0	0	0	0	1	1(0.1)
합계(%)	6	65	11	569	61	290	1002(100)

<표 2>~<표 3>과 <그림 9>의 토기조성비를 참고하면 고산리식 토기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며 특히 4~3층에서 매우 높게 확인된다. 그리고 점열문토기의 출토맥락 역시 고산리식토기와 궤를 같이 한다. 무문양토기는 4층에서부터 출토되지만 오히려 3층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산리식토기와 점열문토기는 시간축이 병행하지만 무문양토기는 전자 보다 후행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영선동식토기는 3층에서 출현하며 그 상층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신석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봉계리식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4층에서 동반 출토되는 점은 의문이다. 이는 4층이 후대 유구 조성과정에서 교란되었거나 아니면 재퇴적으로 인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표 4>의 초창기의 유적별 석기조성비를 살펴보면 먼저 고산리유적은 석촉과 석창 등 수렵구의 비율이 47.3%의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식량가공구가 42.9%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고산리 주민집단의 생업경제는 수렵채집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어로활동(1.7%) 도구는 비교적 낮게 확인된다.





〈그림 9〉 고산리유적 II구역 층서별 토기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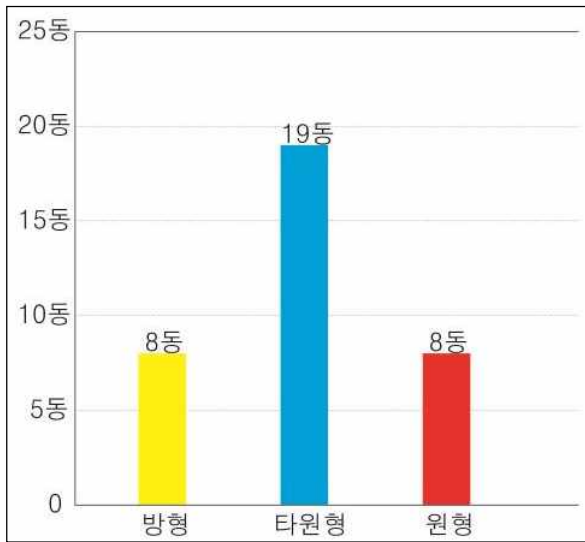
〈표 4〉 제주도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유적별 석기조성비

유적 \ 종류	수렵구 (%)	어로구 (%)	식량 가공구 (%)	장신구 (%)	방직구 (%)	가공구 (%)	기타 (%)	합계 (%)
고산리	305(47.3)	10(1.6)	277(42.9)	1(0.2)	2(0.3)	44(6.8)	6(0.9)	645(100)
김녕리	15(48.4)	0	0	0	0	16(51.6)	0	31(100)
오등동	32(66.7)	0	4(8.3)	0	0	9(18.7)	3(6.3)	48(100)
삼화지구	116(49.8)	0	101(43.3)	1(0.4)	0	13(5.6)	2(0.9)	233(100)
합계	468(48.9)	10(1.0)	382(39.9)	2(0.2)	2(0.2)	82(8.6)	11(1.2)	95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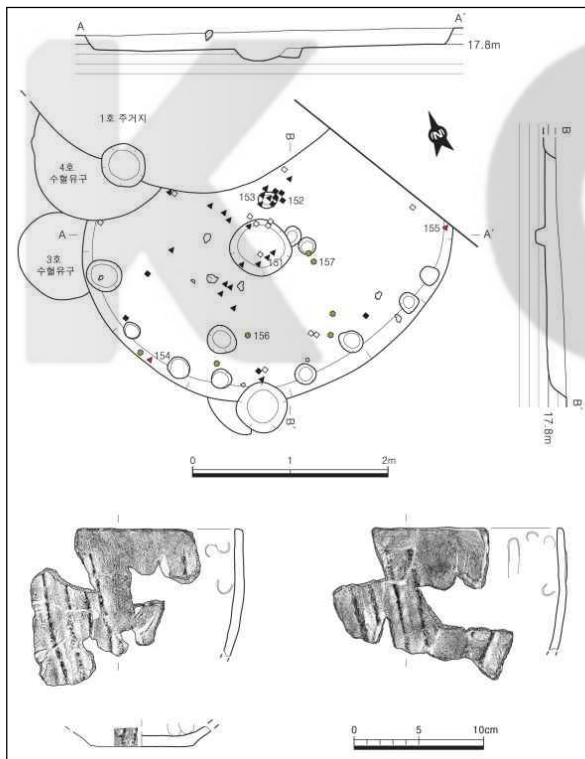
## 2. 절대연대와 선후관계의 분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고산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방형→원형 수혈 설치 주거지, 야외노지는 집석식→소토채움식노지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주거지 내부 중앙 수혈의 형태를 알 수가 없거나 설치되지 않은 5동을 제외하면 원형계(27동)가 방형(8동)에 비해 점유율이 높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용기문토기가 동반되는 신석기시대 초기 이후에 축조된 원형수혈 주거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주거지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delta^2$ ) 측정결과에서도 방형수혈을 갖춘



〈그림 10〉 고산리유적 주거지 분포도



〈그림 11〉 I 구역 S3W1 Grid 2호주거지

N2W1 Grid내 1호주거지 (7,710~7,520 BC)와 N4E1 Grid내 1호주거지(6,500~6,380 BC)에서 비교적 이른 역연대가 도출되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26)</sup> 더불어 S3W1 Grid 2호주거지<그림 11>는 중앙수혈이 원형이고 벽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벽체를 따라 등간격으로 주혈이 배치되어 있다. 이 유구는 용기문토기 1개체분이 출토된 점을 감안하면 초기 단계에 조성된 주거지임은 분명하다.

다음 <표 5>의 주거지에 대한 절대연대 분석결과를 참고하면 크게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이른 시기의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첫 번째 그룹에는 8,350~7,520 BC의 범주에 포함되는 3동의 주거지가 해당된다.

두번째 그룹은 6,500~4,230 BC의 범주에서 4동의 주거지가 포함된다. N4E1 Grid내 1호주거지는 타원형수혈이 방형수혈을 파괴하고 후축

26) 두 주거지는  $\delta^{13}C(\%)$ 값과 표준편차가 매우 안정적이고 매몰토(폐기연대)에서 수습된 점을 감안하면 주거지의 초축연대는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표 5> 고산리유적(1구역) 주거지별 14C연대 분석결과

순번	Grid	유구명	시료	$\delta^{13}\text{C}(\%)$	Converntional $^{14}\text{C}$ yr BP.	Calibrated age(BC/AD)	
						1 $\delta$ (68.2%)	2 $\delta$ (95.4%)
1	S2E4	1호주거지 내부 중앙수혈	목탄	-25.21	9040±60	8310(68.2%) 8220 BC	8350(82.5%) 8170 BC
2	N3E4	1호주거지 내부 중앙수혈	목탄	-29.57	8710±80	7840(67.4%) 7590 BC	7990(91.8%) 7580 BC
3	N2W1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7.30	8570±50	7610(68.2%) 7540 BC	7710(95.4%) 7520 BC
4	N4E1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7.64	7580±40	6470(68.2%) 6420 BC	6500(95.4%) 6380 BC
5	S1E4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8.7	6290±50	5320(68.2%) 5220 BC	5380(87.8%) 5220 BC
6	S1E5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5.36	5610±40	4490(68.3%) 4360 BC	4520(95.4%) 4350 BC
7	S4E2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2.40	5440±40	4350(68.2%) 4260 BC	4360(95.0%) 4230 BC
8	N3W1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3.05	4750±40	3640(64.8%) 3510 BC	3640(76.6%) 3490 BC
9	S2E4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4.39	4180±40	2820(37.4%) 2740 BC	2900(95.4%) 2630 BC
10	S2E4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7.78	4170±40	2820(35.5%) 2740 BC	2890(95.4%) 2620 BC

되었는데 6,500~6,380 BC의 14C연대가 산출되었다. 이 그룹의 주거지는 절대연대 분석결과를 감안하면 중심 시기는 신석기시대 초창기 말기~전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7)</sup> 세 번째 그룹은 3,640~2,620 BC의 절대연대를 보여주는 3동으로 전기~후기 단계에 위치한다.<sup>28)</sup>

야외노지 역시 <표 6>을 참고하면 3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우선 고려되는 것은 N4E3 Grid내 1호소토유구를 제외하고는 7,000 BC를 상회하는 노지는 모두 집석식노지에서만 확인된다. 특히 집석식노지는 대

27) 河仁秀, 「嶺南海岸地域의 新石器文化 研究-編年과 生業을 중심으로」,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37쪽.

28) 세 번째 그룹의 주거지에서는 고산리식토기와 함께 무문양토기가 동반된다. 하지만 전형적인 후기토기는 확인되지 않는 점은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표 6〉 고산리유적(Ⅰ구역) 야외노지 14C연대 분석결과

순번	Grid	유구명	시료	$\delta^{13}\text{C}(\%)$	Converntional $^{14}\text{C}$ yr BP.	Calibated age(BC/AD)	
						1 $\delta$ (68.2%)	2 $\delta$ (95.4%)
1	S1W1	3·4호집석식 노지	목탄	-22.50	8660±50	7720(68.2%) 7590 BC	7820(95.4%) 7580 BC
2	N2W1	1호집석식 노지	목탄	-24.60	8610±50	7680(68.2%) 7570 BC	7750(95.4%) 7550 BC
3	S2W1	1호집석식 노지	목탄	-19.60	8600±50	7660(68.2%) 7570 BC	7740(95.4%) 7540 BC
4	S1W1	5호집석식 노지	목탄	-20.90	8540±50	7600(68.2%) 7540 BC	7650(95.4%) 7510 BC
5	N4E3	1호소토채움 식노지	목탄	-26.31	7980±50	7040(68.2%) 6820 BC	7060(95.4%) 6700 BC
6	S3E5	1호소토채움 식노지	목탄	-25.68	6930±50	5850(63.9%) 5740 BC	5920(92.9%) 5720 BC
7	S1E3	2호소토채움 식노지	목탄	-26.36	4240±40	2910(45.7%) 2860 BC	2920(53.2%) 2840 BC
8	S1E3	2호소토채움 식노지	목탄	-26.23	4150±40	2780(47.7%) 2660 BC	2880(95.4%) 2610 BC
9	N4E3	1호소토채움 식노지	목탄	-27.16	4180±50	2820(54.5%) 2670 BC	2900(95.4%) 2620 BC

부분 7,820~7,510 BC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안정적인 연대이며 또한 동시기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산리유적의 초기에는 집석식노지가 조성되었고 반대로 5,920 BC 이후로는 소토채움식노지가 주류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편 S2E5 Grid내 5호수혈<그림 12>에서는 고산리식토기 1개체분(<그림 15>-①)이 출토된 바 있다. 토기의 하단과 주변으로는 10cm 내외의 현무암이 적석 되어 있으며 피혈흔도 관찰된다. 유구에서 산출된 14C연대를 수용하면 고산리식토기는 적어도 기원전 8,020~7,680년 경<sup>29)</sup>에는 출현하였다는 사실이 출토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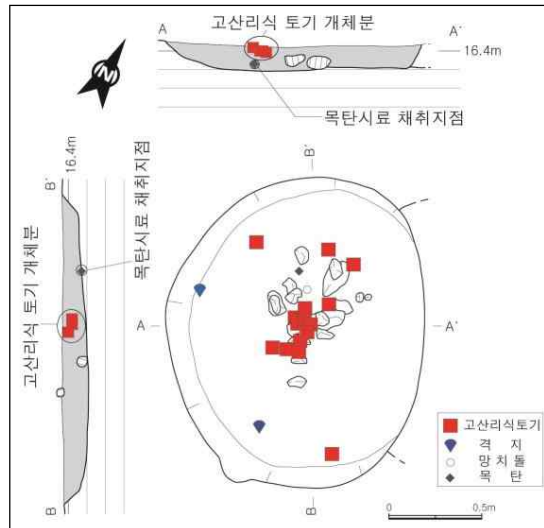
N4E3 Grid내 1호소토유구의 매몰토<그림 13>에서는 모두 4개 층이 퇴적되어 있는데 1층(2,900~2,620 BC)과 2층(7,060~6,700 BC)에 대한

29) 목탄시료는 고산리식토기의 하단부에서 수습되었다(<그림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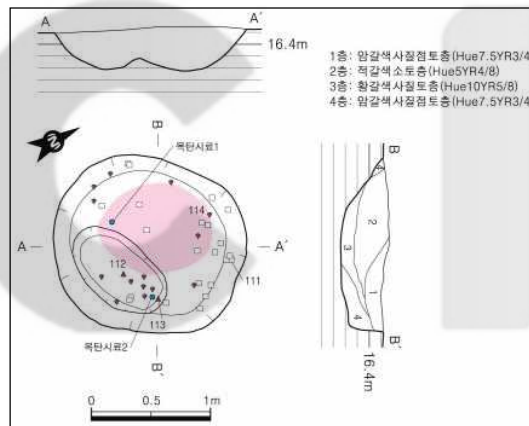
절대연대 분석결과 큰 시기차를 두고 매몰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즉 1층은 1호소토유구가 폐기된 이후 후축되거나 교란된 층으로 절대연대의 심각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토유구 내부 매몰토의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4~2층까지는 일정한 방향으로 매몰된 반면 1층은 2층의 매몰토를 파괴하고 반대 방향으로 퇴적된 것이 확인된다. 이를 참고하면 결과적으로 1층은 4~2층과 시차를 두고 후축된 유구의 매몰토임을 알려주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유구의 선후관계와 매몰토의 양상 그리고 AMS연대 측정결과를 참고하면 신석기시대 초창기~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적이 존재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S2E4 Grid내 1호주거지는 상부에서 다량의 목탄이 노출되었는데 14C 분석결과 대체로 2,900~2,620 BC의 역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주거지 내부의 중앙 시설에 대한 절대연대 분석결과는 8,350~8,170 BC가 산출되어 매우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1호주거지가 시기를 달리하는 유구와 서로 중복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고산리식토기 단계의 주거지가 축조된 이후 신석기시대 후기의 유구가 후축되고 심지어 청동기시대의 16호수혈유구가 재차 주거지의 동벽 일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sup>30)</sup>. 또한 N2W1 Grid내 18



〈그림 12〉 I 구역 S2E5 Grid내 5호수혈유구



〈그림 13〉 I 구역 N4E3 Grid내 1호소토유구

호수혈유구도 3점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1점(7,510~7,180 BC)을 제외하고 2점은 각각 4,710~4,500 BC와 3,470~3,370 BC의 편년이 산출된 바 이와 같은 논리를 뒷받침해 준다. 이처럼 동일 유구내 절대연대 결과의 큰 편차는 퇴적과정에서 시기를 달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교란되거나 중복되었다는 사실을 웅변해 준다.

N2W1 Grid의 조사결과 1호주거지→13호수혈→14호수혈유구 순으로 축조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선행하는 1호주거지의 절대연대 분석 값은 7,710~7,520 BC로 산출되었고 후축된 14호수혈유구는 3,960~3,710 BC에 위치한다. 따라서 유구의 축조순서와 절대연대 편년이 매우 정합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또한 S1W1 Grid내 집석식노지의 중복관계를 살펴보면 3호→4호→5호 순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절대연대 분석결과에서도 3호와 4호노지(7,820~7,580 BC)가 5호(7,650~7,510 BC)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위치하고 있다.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로 유구의 축조순서와 절대연대의 양상에서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전술한 내용들은 유구와 AMS 분석자료의 선후관계가 매우 정합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고고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 IV. 정주환경과 주민집단의 성격

### 1. 정주성 환경의 인식

연중 거주를 의미하는 정주생활은 고고학적으로 저장시설, 주거지, 무덤 등의 영속적 시설과 함께 토기, 갈판 등의 무거운 유물과 계절적 연속성을 증명하는 동물유체가 활용된다. 그리고 취락을 영구적인 정착 개념의 정주로 인식하면서 이동과 정착의 과도기적 단계를 ‘반정주’라는

30) 동 주거지와 내부 중앙시설은 동일한 흑갈색사질점토(Hue7.5YR2/1)가 퇴적되어 있으며 반면 주혈의 충전토는 암갈색사질점토(Hue7.5YR3/4)가 매몰되어 구별된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유적Ⅲ』, 2017, 93-95쪽).

용어로 정립하기도 한다.<sup>31)</sup> 더불어 정주는 하나의 거주 공간에서 연중 지속되는 거주방식을 의미하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을 줄이고 비교적 오래 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와 집단의 일부라도 같은 장소에 연중 거주하는 방식을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sup>32)</sup> 더 나아가 몇 채의 주거가 동시에 존재하고 그 토지와 주거가 계속 또는 반복해서 이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정주의 필요조건으로 논의하는 사례도 있다.<sup>33)</sup>

동아시아 일대 신석기시대 초창기 정주취락의 사례를 검토해보면 우선 러시아 아무르강과 연해주 일대에서 1만 년 전부터 얇은 반수혈주 거지가 확인되고 있지만 기원전 6,000년 이후 주거지와 저장혈이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다.<sup>34)</sup> 후빙기의 아무르강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이 풍부하고 강에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은 주민의 이동을 최소화 시키는데 토기 제작을 위한 점토 채취과정은 단계적으로 반정주생활에서부터 가능하게 된다.<sup>35)</sup>

후빙기 이후의 환경변화는 수렵채집 위주의 생업경제와 함께 바다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상정된다. 이는 당시 주민집단의 다양한 식량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적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자원의 획득으로 인해 바다와 인접한 곳은 반정주적인 성격의 유적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수렵채집 행위의 병행은 주변지역으로의 활동영역 확대라는 두 가지 에너지체계를 갖추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해양환경의 변화 이전에는 수렵채집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생업시스템이 점차 바다를 활용하는 생계패턴으로 다변화되었다고 정의할 수

31) 安承模 「동아시아 정주취락과 농경 출현의 상관관계-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韓國新石器研究』 第11號, 韓國新石器學會, 2006, 26쪽.

32) 유지인,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81쪽.

33) 하야시 켄사쿠, 앞의 책, 2015, 406쪽.

34) 安承模 앞의 논문, 2006, 36쪽.

35) 김재운, 「아무르 강 하류와 연해주의 신석기 초창기 토기」, 『韓·日 初期 新石器文化 比較研究』, 第10回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2013, 64쪽.

있다.

중국에서는 초창기의 토기가 기원전 10,000년을 전후하여 출현하고 7,000~5,000 BC의 북중국에서는 이미 농경과 정착 생활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sup>36)</sup> 또한 일본 열도에서도 조몬 초창기에 수혈식주거지<sup>37)</sup>가 등장하는데 시즈오카현(靜岡縣) 쿠즈하라자와(葛原沢)Ⅳ유적을 비롯하여 토치기현(栃木縣) 노자와(野沢), 야마나시현(山梨縣) 우에노하라(上野原) 유적<sup>38)</sup>에서도 확인된다.<sup>39)</sup>

최근 남한지역 신석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양양 오산리와 고성 문암리유적에서 기원전 6,000년을 상회하는 연대 값이 도출되어 주목된다.<sup>40)</sup> 이처럼 한국에서도 기원전 6,000년 경 두 유적을 시작으로 취락이 등장하였고 기원전 4,000년경에는 본격적인 정주취락이 출현하기 시작한다.<sup>41)</sup> 무엇보다도 오산리와 문암리에서는 주거지를 비롯해 토기요지와 함께 저장과 매장시설 등이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신석기시대 초기에 이미 정주의 성격을 갖춘 취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요컨대 동아시아 일대는 신석기시대 초창기 단계에 정주 혹은 반정주의 취락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기원전 6,00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정주취락이 조성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면

36) 리 평, 『중국고대사』, 이청규 옮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42-44쪽.

37) 조몬 초창기 수혈식 유구 출토 토기편의 탄화물에 대한 절대연대(AMS) 측정결과 교정연대는 13,700~13,200 BP로 이르게 나타난다(고바야시 겐이치, 「일본 초창기의 주거 연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104쪽).

38) 우에노하라유적은 기원전 9,500년경 조몬 초창기 처음으로 등장한 정주취락에 해당한다(스티븐 마이든, 성춘택 역, 『빙하이후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462쪽).

39) 國立歴史民俗博物館, 『縄文はいつから!?-1万5千年前になにがおこったのか』, 國立歴史民俗博物館 企画展示, 2009, 49-51쪽.

40) 구자진, 「한반도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특징과 전개양상」, 『한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한국신석기학회 학술총서1, 2009, 300-301쪽.

41) 배성혁, 「신석기시대 취락의 공간구조」, 『韓國新石器研究』 第13號, 韓國新石器學會, 2007, 2-3쪽.



신석기시대 초창기 단계의 고산리유적에서도 초기의 반정주성 취락이 출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후와 해양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 수렵채집 중심의 생계패턴에서 바다자원을 활용하는 생업시스템이 추가되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수렵대상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주민집단 역시 이주할 필요가 없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초식동물에 대한 수렵은 비고차로 500~600m, 직선거리로는 100km 이내의 소규모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중소형의 초식동물은 정착성이 높는데 일본 사슴의 생태를 관찰한 결과 한 개체군의 계절이동은 20~30km 범위에 불과하다.<sup>42)</sup>

〈표7〉 거점유적과 주변유적의 직선거리(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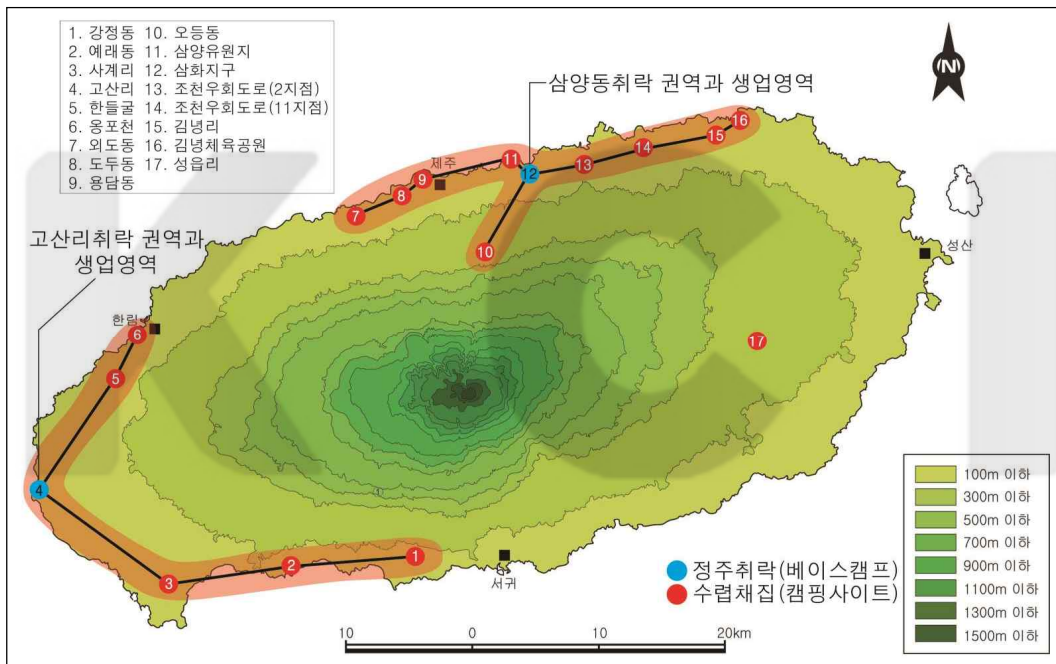
거점유적	유적명	직선거리	성격
고산리	한들굴	9.4	캠핑유적
	사계리	13.4	캠핑유적
	옹포천	13.9	수렵공간
	예래동	22.3	캠핑유적
	강정동	30.7	중심지유적
삼양동	용담동	7.0	수렵공간
	도두동	7.7	캠핑유적
	오등동	8.7	캠핑유적
	조천리	11.7	캠핑유적
	외도동	13.6	캠핑유적
	김녕리	17.5	캠핑유적

상술한 내용을 반영하면 고산리유적은 해안과 맞닿은 곳에 위치하므로 수렵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이동거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유로 고산리 주민집단은 중소형 초식동물의 수렵, 수산자원의 활용, 견과류의 획득, 그리고 자생식물의 자원화를 통해 반정주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신석기시대 초창기유적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며칠(2~3일) 이내에

42) 하야시 켄사쿠, 앞의 책, 2015, 475쪽.

왕복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7>과 <그림 14>를 참고하면 제주도 신석기시대 초창기<sup>43)</sup>의 유적은 고산리유적을 중심으로 볼 때 반경 30km 내외의 영역권에는 한들굴, 옹포천, 사계리, 예래동, 강정동유적 등이 위치한다. 이에 반해 삼양동유적은 고산리에서 40km가 넘고 심지어 김녕리는 직선거리로 60km 이상 벗어나 있다. 유적간 거리를 고려하면 오등동을 비롯한 용담동, 조천우회도로, 김녕리는 삼양동유적과 연계된 생업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14> 제주도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거점과 생업영역(박근태, 2016에서 재편집)

이처럼 제주도 신석기시대 초창기 단계는 고산리와 삼양동유적을 거점으로 주변 30km 이내의 수렵채집 및 식량원 획득범위를 갖춘 주변유적이 산재한다는 결과를 읽어낼 수 있다. 이것은 곧 베이스캠프의 성격을 갖는 두 곳의 정주 혹은 반정주취락을 중심으로 식량원 획득을 위

43) 유적의 성격은 박근태의 논고를 참고하였다(박근태, 「고산리유적의 석기조성과 생업」,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226쪽).

한 소규모 캠핑사이트가 일정 영역내에 분포하는 것을 통해 해석이 가능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산리에서 출토된 다량의 성형석기는 유적의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수렵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가공과 제작을 위한 석기 제작장으로 활용되었고 주거와 관련된 부가시설의 축조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고산리식토기가 이동성이 강한 소규모 수렵채집 집단의 조리<sup>44)</sup>에 일회용으로 사용된 후 폐기되었다고 추정하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sup>45)</sup> 필자는 이와 같은 견해에 동조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동성이 강한 소규모 집단이 일시적인 취사를 위한 토기제작으로 보기에 그 양이 너무 많다. 그리고 고산리식토기와 주변 토양의 화학적(광물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특정지역의 선택된 흙으로 제작되었다는 점<sup>46)</sup>도 좋은 품질의 토기제작을 위해 다양한 실험적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다가 조리 혹은 취사와 관련된 탄착흔과 그을음 및 산화소실 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도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sup>47)</sup>

또한 조몬 초창기(전엽)의 용기선문토기는 환저 혹은 침저에 가까운 환저 등 다양한데 자비용 토기는 환저와 침저가 불에 닿는 면적(열효율)이 평저보다 높다.<sup>48)</sup> 현재 고산리식토기는 원저 1~2점을 제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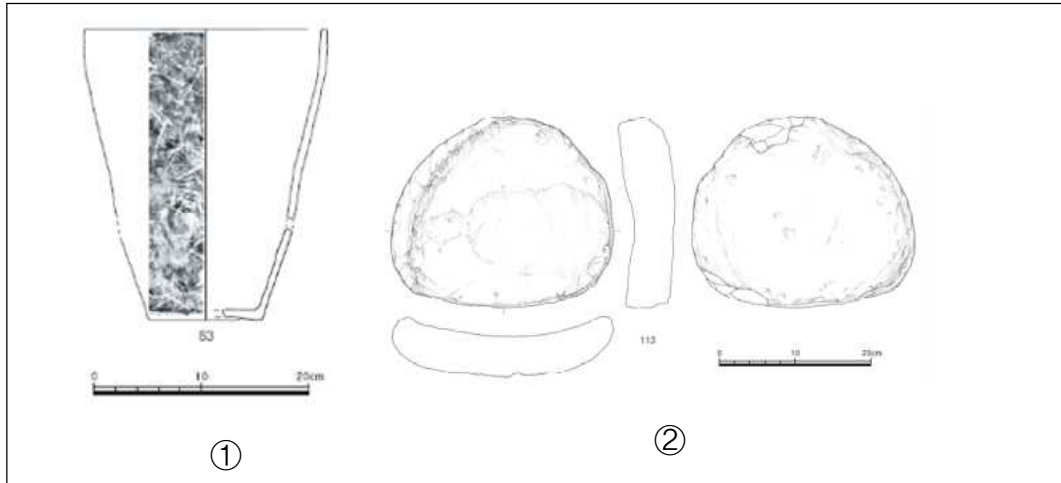
44) 패류와 견과류는 상온건조와 훈증 등의 전처리를 위해 끓이는 경우가 많고 탄닌과 기름제거 및 추출(油脂)의 수단으로도 발전한다(하야시 켄사쿠, 앞의 책, 천선행 옮김, 2015, 482쪽). 최근 조몬 초창기 토기의 탄화물 분석결과 식물성 식료뿐만 아니라 육상동물과 수산자원을 포함한 동물성 식량의 조리에도 토기가 사용되었다(다나가 소이치, 「동아시아 신석기 시대 연구로 본 제주도 고산리 유적의 위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2016, 265쪽).

45) 소상영, 앞의 논문, 2016, 203쪽.

46) 강정동과 오등동, 김녕리유적의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은 동유적 출토 고산리식토기와 화학적으로 동질성이 높아 바탕흙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고산리유적은 다르게 확인된다(장성윤·이기길, 「왜 고산리식토기에 식물 비집이 사용되었을까?」, 『한국상고사학보』 제102호, 2018, 18쪽).

47) 정수옥·나가토모 토모코, 「토기의 탄소부착흔을 통해 본 소성과 조리방법」, 『韓國上古史學報』第65號, 韓國上古史學會, 2009.

48) 하야시 켄사쿠, 앞의 책, 2015, 91-92쪽.



〈그림 15〉 고산리유적 출토유물(① 고산리식토기 ② 대형 연석)

는 대부분 평저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일시적인 자비용기로 단정짓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sup>49)</sup>

고산리식토기는 7,600 BC를 전후하여 출현하고 4,500 BC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기도 한다.<sup>50)</sup> 이러한 주장은 고산리식토기의 제작과 사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다량의 성형석기의 제작과 대형 연석<sup>51)</sup>, 집석식노지의 활용은 고산리유적이 장기적으로 점유되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인 셈이다.

## 2. 주민집단의 성격

고산리유적은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수렵과 석기제작을 위한 장소이며 또한 고산리식토기는 이러한 석기제작과 관련된 일시적인 취사용 도구로 이동성이 강한 집단이 장기간 동안 점유했던 유적으로 해석하

49) 일본 내 용기선문토기 단계 이전의 토기는 취사 흔적이 많지 않다. 때문에 일상적인 조리보다는 한정적이고 계절적 이용으로 상정하는 논의가 있다(工藤雄一郎, 앞의 논문, 2013, 55쪽). 또한 담그기 혹은 발효처리 식품의 저장수단으로 토기에 보관하는 경우도 확인된다(하야시 켄사쿠, 앞의 책, 2015, 482쪽).

50) 소상영, 앞의 논문, 2016, 203쪽.

51) 대형 연석은 그 무게(7,680g)를 감안하면 고정된 상태에서 장기간 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는 견해가 있다.<sup>52)</sup>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돌아와서 점유하고 이동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매우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한다. 아무리 단기적으로 반복 점유되었더라도 다량의 고산리식토기와 성형석기, 연석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러한 주장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고산리유적은 석재를 채집하고 석기를 제작했던 석기제작장의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량의 유물이 확인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sup>53)</sup> 석기제작만을 위한 이동성이 강한 주민집단의 일시적 점유라면 굳이 성형석기를 다량으로 제작하여 폐기하거나 식량의 조리를 위하여 많은 양의 토기를 제작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석재만을 확보하여 이동하거나 아니면 석기제작 후 고산리유적을 이탈하여 목적지로 빠르게 귀환한다면 다량의 성형석기와 토기제작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표 7>을 참고하면 정주취락(베이스캠프)에서 수렵공간인 주변유적(캠핑사이트)이 2~3일 이내의 단기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는 것도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 해준다.

오히려 일시적인 점유와 이동을 위해서는 더욱 더 이동성이 강한 유물조합이 발현되어야 하지만 고고자료에서는 정반대로 구현되고 있다. 예컨대 일시적이고 이동성이 강한 주민집단으로 해석할 경우 주거지를 비롯한 다양한 유구의 축조, 성형석기와 토기의 대량 생산, 대형 갈판과 같은 정착형 생업도구의 제작, 대규모 집석식노지의 축조, 절대연대 분석 자료에서 도출되는 초창기~조기 중심의 장기적인 유적 점유 현상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 어렵게 된다.

고산리 주민집단은 다변화된 생업경제를 영위하기 위해 정주성 정착 환경을 조성하고 일시적으로 이탈하여 수렵활동 후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고산리유적은 수렵채집 집단이 복합생계의 중심인 거점유적을 기반으로 원거리 수렵활동을 위한 베이스캠프적인 기능을 하였고 이는 바로 정

52) 소상영, 앞의 논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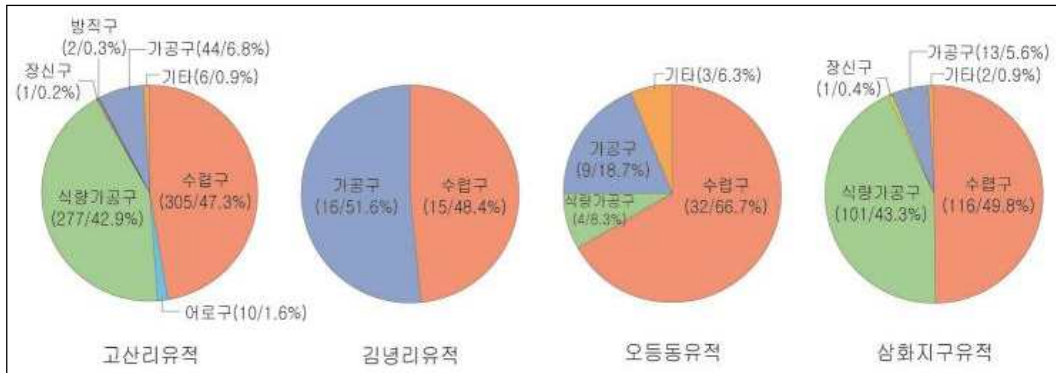
53) 濟州考古學研究所, 『제주 고산리유적Ⅱ(2구역-2차)』, 2017b.

주 혹은 반정주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이동성이 강한 수렵 채집민이라면 대규모적이고 장기적인 거점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것은 수렵채집과 같은 식량자원의 획득은 결과적으로 자원을 따라 이동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이동성을 지닌 집단이 고산리 유적에서 반복적으로 거점을 확보하고 이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단기적일지언정 반복적인 점유를 했던 유적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저장과 정주의 개념이 포함된 생업활동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반복적인 점유의 원인에는 대규모의 정주취락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일정 규모의 취락을 구성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로 보건대 고산리유적은 신석기시대 초창기 이후 주민집단의 정주화 혹은 반정주화된 취락으로 해석되며 수렵채집과 어로활동을 병행하는 생업경제<sup>54)</sup>가 유지되었다고 추정된다. 그것은 많은 양의 고산리식토기가 모두 조리에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저장과 발효 및 자비용 등 여러 기능에 활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주지역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유적별 석기조합상(<표 4>와 <그림 16>)을 살펴보면 수렵채집이 주된 생업시스템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수렵구를 살펴보면 전체 957점중에서 468점(48.9%)으로 석기조성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시 석기제작의 모멘텀이 수렵구 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식량가공구는 382점(39.9%)이 출토되었는데 점유율을 보면 역시 채집활동을 통해 식량획득에 집중하였음을 추정케 한다.

54)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생업활동으로 수렵과 어로, 채집과 함께 원시농경을 제시한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박근태, 앞의 논문, 2016).



〈그림 16〉 제주도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유적별 석기조성 분포도

반면 유적별 석기조합상을 분석해보면 우선 고산리유적은 수렵구가 47.3%(305점)를 차지하는데 당시 식량자원 획득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식량가공구 역시 42.9%(277점)의 높은 점유율은 채집행위도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음을 의미한다. 고산리유적에서는 침두형석기인 석촉을 중심으로 하는 석기조합이 특징적이다.<sup>55)</sup> 석기 중에서 화살촉과 석창(침두기)은 수렵구로 분류되는데 현재 고산리유적의 석기조성비를 분석해보면 50% 정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56)</sup> 석제어망추는 10점(1.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수렵채집 활동에 비해 어로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짐작케 한다. 하지만 다수의 어형석촉과 함께 유적이 해안환경에 인접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어로도구의 낮은 점유율만으로 어로활동이 미진했다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삼화지구유적은 수렵구가 49.8%(116점), 식량가공구는 43.3%(101점)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석기조성비를 놓고 보면 고산리유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오등동유적은 개체수가 적지만 수렵구(66.7%/32점)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식량가공구(8.3%/4점)는 매우 낮게 확인된다. 이것은 수렵을 위한 영역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왜냐하면 해안변에 인접한 유적에서는 수렵과 채집구의

55) 고재원, 「遺物로 본 濟州島 高山里文化」, 『韓·日 初期 新石器文化 比較研究』, 第10回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2013, 11쪽.

56) 박근태, 앞의 논문, 2016, 215쪽.

비율이 높은 반면 해발고도가 높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중산간 지역에서는 채집보다 수렵구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인 정주성 환경과는 반대로 수렵을 위한 단기적인 유적의 성격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에 해당한다. 즉 오등동유적은 수렵에 집중하기 위한 곳으로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캠핑유적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오등동유적은 해안과 가까운 삼화지구에 정주취락을 갖추고 단기적인 수렵을 위해 이동했던 일시적인 거점유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석기시대 초창기~조기 단계의 정주성 취락은 고산리와 삼양동권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당시 제주지역은 고산리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 생업권역과 삼양동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있는 북부지역 권역으로 나뉘어진다. <그림 14>를 참고하면 신석기시대의 고산리권역은 비교적 원거리 생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삼양동권역은 근거리에 다수의 생업공간을 확보하는 상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산리유적에서 다량의 석기와 토기가 출토되는 것은 이러한 수렵패턴의 차별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원거리 수렵활동을 위해서는 다량의 석기를 휴대하고 이동해야 하지만 근거리 수렵은 베이스캠프와 캠핑사이트 간 수시로 왕복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량의 석기 제작만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원거리 수렵으로 획득한 식량원의 장기간 보관유지와 식료가공 및 저장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다량의 토기제작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산리 주민집단은 해양성 연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렵채집 위주의 생업경제에서 벗어나 어로활동과 자생식물의 활용 등 다변화된 생계패턴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이동성 생활방식에서 탈피한 정주성 환경이 조성되었고 수렵채집 구성원과 비수렵채집 구성원의 역할이 분리되었다. 이는 곧 원거리 수렵에 참여하는 성인을 제외하고 어로활동과 식료가공 및 저장, 토기의 제작과 같은 정착지내에서도 가능한 생산행위는 비수렵채집 구성원이 담당하였



을 것이다. 고산리식토기의 대량 생산은 결국 저장과 조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수렵과 어로활동에 의해 획득한 짐승과 물고기, 어패류 등을 가열하여 섭취하거나 저장하는 문화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지도 모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산리 주민집단은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집석식노지를 축조하면서 정주성 취락을 형성하고 수렵채집 활동을 위한 원거리 이동과 복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수렵채집을 위해 원거리 사냥에 나섰던 구성원은 일정기간 거점유적을 이탈하여 이동하면서 생활하고 정착지로 복귀한 후 다시 수렵활동에 참여하는 생활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보건대 신석기시대 초창기 단계의 소규모 유적들은 정주지에서 이동하여 수렵채집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고산리유적은 이처럼 정착과 이동을 병행하는 반정주성 취락에 해당하며 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이동보다는 수렵채집을 위한 소규모적 이동이 상정된다. 그러나 원거리 수렵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수렵민은 고산리취락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 V. 맺음말

고산리유적은 신석기시대 초창기 이후의 생활유적에 해당하며 산출된 절대연대 분석결과를 참고하면 7,820~7,510 BC를 중심으로 출현하기 시작한다. 초창기 단계의 고산리 주민집단은 원거리 수렵채집과 어로행위를 기본으로 하는 생업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적이 점유된 이후 신석기시대 후기까지도 계속해서 취락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고산리식토기가 성행하는 단계에 가장 집중되었고 이후 용기문토기 단계를 거치면서 축소되고 있다.

제주도는 11,000년 전 해수면이 대략 40m 정도 내려가 있었고 다시 7,000년 전 쯤에는 지금과 비슷하게 변화된다. 고산리유적은 이러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출현하였으며 연안환경의 변화는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다변화된 생업패턴으로 전환된다.

고산리유적은 정착과 이동을 병행하는 유적에 해당하며 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이동보다는 수렵채집을 위한 소규모적 반복 이동이 상정된다. 그러나 수렵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구성원은 정착화된 취락에서 토기제작, 식량가공 및 저장, 어로활동 등 비수렵민의 생업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산리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집석식 노지, 대형 연석, 다량의 성형석기와 토기는 장기간에 걸친 정주성 환경을 갖춘 취락의 증거로 해석된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를 참고하면 고산리유적은 신석기시대 초창기 이후 주민집단의 정주 혹은 반정주 환경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K C I

참고문헌

- 康昌和, 「濟州 高山里 新石器文化 研究」,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 고바야시 겐이치, 「일본 초창기의 주거 연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 고재원, 「遺物로 본 濟州島 高山里文化」, 『韓·日 初期 新石器文化 比較研究』, 第10回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2013.
- 工藤雄一郎, 「繩文時代の 시작과 環境變動」, 『韓·日 初期 新石器文化 比較研究』, 第10回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2013.
- 구자진, 「한반도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특징과 전개양상」, 『한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한국신석기학회 학술총서1, 2009.
- 具滋振, 「한국 신석기시대의 집자리와 마을 연구」, 崇實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0.
- 國立歷史民俗博物館, 『繩文は いつから!?—1万5千年前になにがおこったのか』,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企劃展示, 2009
- 金慶柱,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韓國青銅器學報』 6號, 韓國青銅器學會, 2010.
- 김명진, 「OSL 연대측정을 통한 제주 고산리 유적의 형성과 점유시기 결정」, 『분석과학』 29(6), 한국분석과학회, 2016.
- 김명진·이용주, 「고산리유적 퇴적층과 목탄분석을 통한 유적 형성과정과 점유시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 김재운, 「아무르 강 하류와 연해주의 신석기 초창기 토기」, 『韓·日 初期 新石器文化 比較研究』, 第10回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2013.
- 다나카 소이치, 「동아시아 신석기 시대 연구로 본 제주도 고산리 유적의 위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 리 평, 『중국고대사』, 이청규 옮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 박근태, 「고산리유적의 석기조성과 생업」,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 방문배, 「고산리유적 유구의 성격과 정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 배성혁, 「신석기시대 취락의 공간구조」, 『韓國新石器研究』 第13號, 韓國新石器學會, 2007.
- 小林謙一, 「繩文時代前半期の實年代」, 『國立歷史民俗博物館 研究報告』, 第137集, 2007.
- 소상영, 「고산리 유적 출토 토기의 자연과학 분석을 통한 제작기술과 사용연대 추정」,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 소상영, 「제주 고산리 유적의 편년과 성격」, 『韓國新石器研究』 第33號, 韓國新石器學會, 2017.
- 스티븐 마이든, 성춘택 역, 『빙하이후-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 20,000~5,000BC』,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安承模, 「동아시아 정주취락과 농경 출현의 상관관계-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韓國新石器研究』 第11號, 韓國新石器學會, 2006.
- 유지인,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林潤也, 「九州における繩文時代竪穴住居の變遷」, 『日韓新石器時代の住居と集落』, 日韓新石器時代研究會 제7회 발표자료집, 2007.
- 임재수, 「동북아시아 후빙기 자연환경과 고산리지역의 환경 복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 장성운·이기길, 「왜 고산리식토기에 식물 비짐이 사용되었을까?」, 『한국상고사학보』 제102호, 2018.
- 정수옥·나가토모 토모코, 「토기의 탄소부착흔을 통해 본 소성과 조리방

- 법-늑도유적 사례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第65號, 韓國上古史學會, 2009.
- 濟州考古學研究所, 『제주 고산리유적 I(2구역)』, 2017a.
- 濟州考古學研究所, 『제주 고산리유적 II(2구역-2차)』, 2017b.
- 濟州考古學研究所, 『제주 사계-인성유적』, 2017c.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2014.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II』, 2015.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III』, 2017a.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IV』, 2017b.
- 崔基龍, 「韓半島 後氷期の 植生 및 氣候 變遷史」, 『韓國 新石器時代の 環境과 生業』, 東國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第1回 學術會議 資料集, 2001.
- 하야시 켄사쿠, 『일본 신석기시대 생업과 주거』, 천선행 옮김,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5.
- 河仁秀, 「嶺南海岸地域의 新石器文化 研究-編年과 生業을 중심으로」,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 하인수, 「남해안지역 용기문토기의 편년」,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중앙문화재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2.
- 한국지질환경연구소,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조사지역의 퇴적환경 변화와 유구 내부토의 토양 특성 연구」, 『제주 고산리 유적 III』,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 黃喆周, 「韓半島 東·南海岸地域 隆起文土器 研究」,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2.

#### 〈그림출처〉

- <그림 3>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II』, 2015.
- <그림 4~8, 11>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2014.
- <그림 12>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III』, 2017a.
- <그림 13>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IV』, 2017b.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Historic Site of  
Gosan-ri in the Neolithic A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Groups

Kim, Kyoung-Ju \*

The relics of Gosan-ri are the remains of the Neolithic Age that first appeared 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ince the formation of the first site, settlements continued to appear until the late Neolithic Period.

The Gosan-ri site appeared in the course of human adaptation to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offshore environment led to subsistence economy patterns of using marine resources. Like this, villagers in the Gosan-ri site formed a sedentary settlement due to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made a living by hunting-gathering and fishing. In this sense, the Gosan-ri site represents a village for settlement and movement at the same time, in particular for a small-scale movement for hunting and gathering rather than for a collective movement of the entire community.

Dwelling sites, open fields, a great deal of pottery and molded stoneware, and large grinding plates excavated in the Gosan-ri remains are considered as a proof of long-term sedentary settlement. <sup>14</sup>C age dating results suggest that since its inception in the beginning of the Neolithic Period, the Gosan-ri settlement continued into early, middle and late stages of the period.

---

\* Assistant Director of Jeju Cultural Heritage Institute

Key-words: beginning, sedentary settlement, subsistence economy, Gosan-ri style pottery, villagers

논문투고일: 2019.05.09.

심사완료일: 2019.05.27.

게재확정일: 2019.06.04.

K C I

КСІ